



주 제:	“살아있는 빵”	“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	2008년 5월 25일
복음 묵상:	[요한 6,51-58]	[신명 8,2-3. 14 나-16 가]	[1 코린 10,16-17]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얻게 되는 생명을 통해 표현됩니다. 또한 성체성사를 통해 갖게 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것처럼 그분의 몸과 피를 통해 양육되는 그리스도인도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가는다고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주님께서 어떻게 현존하고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분은 ‘쪼개진 몸’으로서 그리고 ‘흘린 피’로서 계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리고 자신의 심장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때까지 자신의 온 삶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쪼개진 몸’과 ‘흘린 피’를 받아먹고 마시면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라는 영성체 전의 고백을 입으로만이 아닌 온 마음으로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하듯, “그리스도의 몸”에 “아멘”이라고 응답할 때 그 “아멘”이 참된 대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순결을 간직하고 진정 우리의 희망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성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늘 저 높은 곳에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 변종찬 신부님 강론 중에서)

1. 성가대 소식

축하합니다.
축복귀; 그 동안 한국에서 근무하게 되어 성가대를 떠나셨던 안호삼 프란치스코 형제님 (레너)께서 2주전 철수하시자마자 성가대에 복귀하셨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왕래하시던 안영희 세실리아 자매님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듬뿍 내리시기를 빌며 다시한번 성가대 복귀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기도요청

- 지난 4월말 **인후자 엘리사벳 자매님이** 아들과 함께 귀가중 교통사고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기도중에 꼭 기억하시어 빨리 건강찾으시어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청해 주십시오.
- **신계완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 가족들과 약속때문에 금주 연휴를 기해 여행을 떠납니다. 안전 운전으로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연휴를 기해 장거리 여행을 하시는 모든 가족들은 안전 운전이 각별히 신경쓰시어 모두가 다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은 지킵시다.

- 미리 나누어 준 예정표의 성가를 계속적으로 아침에 연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부터 9:15 부터 9:30 까지 15 분간 악보로 **발성 연습**을 하오니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 성가대 소식난은 꼭 읽어 보시고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불편과 시간을 주님께 봉헌하며 환한 주님의 웃는 모습을 보지 않으시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 온 살아 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서로 따졌다.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 온 빵이다. 이 빵은 너희의 조상들이 먹고도 결국 죽어 간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1분 명상

" 가장 좋은 자녀 신앙교육, "



“자녀 신앙 교육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삶을 통한, 경험을 통한 신앙 교육 방법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도 기도를 합니다. 부모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도 봉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할 때 자녀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가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 때 자녀도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깨달은 바를 가슴에 새기게 되고, 새긴 바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자녀 신앙 교육 방법입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내 피의 잔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